

곡성군, 수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심리회복 상담 제공



곡성군이 수해 이재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재난심리회복 상담서비스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13일부터 서비스 시작해 산사태 발생한 성덕마을 주민 위해 이동상담소 운영

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경험자들이 일상생활로 조속하게 복귀하려면 상담 등을 통해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신적 외상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8월 13일부터 수해를 입은 마을주민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산사태가 발생했던 성덕마을 주민들을 위해서는 오산면 마을회관에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재난 충격에 따른 이재민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회복에 중점을 둔 재난 심리회복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재난 정신건강 선별검사지를 활용한 사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주민의 정서적 심리안정에 힘쓰고 있다. 우울, 불안감이 심화되는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회복단계까지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는 마음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발 빠른 재난심리지원 대응으로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안정 및 건강한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고, 재난 후 스트레스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전화(061-363-9917) 및 방문을 통해 정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서비스는 전라남도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곡성=김광희 기자

“75세 이상 어르신 치매 검진 받으세요”

광주 광산구 치매안심센터, 내달 1일부터 가정방문 ‘치매 전수 검진’

광주 광산구가 다음달 1일부터 4개월 동안 가정방문으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 11,606명의 ‘치매 전수 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전수 검진은 치매 사각지대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관리하기 위한 것. 광산구치매안심센터는 치매검사요일 16명을 모집해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안전 교육을 마친 다음 이번 검진

에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 어르신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아파트 승강기 718곳에 관련 화상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검진은 ‘간이 정신상태 검사지(MMSE-DS)’를 이용해 지남력·기억력·사고력 등 19개 문항에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센터는 1차 검사 결과, 인지 저하 등 2차 검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진

단 검진을 실시한다. 3차 정밀검사 대상 어르신은 협약병원으로 안내해 혈액검사와 뇌영상 촬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치매로 확진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치매치료비와 조호물품 지원, 1:1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찾아가는 서비스로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강진군 탐진로타리클럽,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난 22일 탐진로타리클럽 회원 20여 명이 성전면의 한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집 주변 풀베기와 제조작업을 지원했다. 대상 가구는 강진군 위스타트 글로벌 발아동센터의 사례관리대상 다문화가구로 지속적으로 방문상담 및 관리하고 있었다. 가구는 건강이 점점 좋지 않아져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최근 집 주변에 잡초들이 성인 무릎만큼 자란 상태로 가족들이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위스타트에서 군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강진군에서 연계한 지역사회단체 탐진로타리클럽에서는 이 같은 소식을 듣고 바로 긴급출동대를 모집해

회원 20여 명이 22일 오전 8시에 모여 풀베기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조작업까지 완료했다. 봉사 지원을 받은 가정에서는 시원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감추지 못했다. 임양수 탐진로타리클럽회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힘든 시기이다. 주변의 주거환경이 깨끗해야 주민 모두가 위험요소로부터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자원봉사활동조차 어려운 시기이지만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광주시, 집단감염 위험 사회복지시설에 방역물품 지원

방호복·체온계·소독약 1억2300만원 상당 전달 광주시는 사회복지시설에 코로나19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1억2300만원을 투입해 이날부터 집단감염 위험 사회

복지시설 283곳에 방역용품 2200여 개를 긴급 지원한다. 지원 물품은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노인, 장애인, 정신, 노숙인 시설에 방호복 774개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체온계 348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소독약 1140 개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재난관리기금 9000만원을 투입해 사회복지시설 32곳에 방호복 소독기, 살균 소독제, 소독액 등을 1차로 지원한 바 있다. 류미수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고 시민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